

“시민 안전 · 행복, 시민경찰의 존재 이유”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경찰 업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체험을 해 보는 것이죠”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에서 운영 중인 '시민경찰학교'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6년 시민경찰학교에는 군산시민 59명이 입학했다.

10기 입교생들은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거쳐 경찰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지역치안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현장에 투입돼 경찰업무와 일선 치안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시민경찰학교는
 시민경찰학교란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질서의식 및 자위방법의식을 높여 시민과 경찰의 협력치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경찰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불안한 사회분위기 속에 일반 시민이 경찰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뉴저버너스 시대의 참여치안의 대명사이자, 공

지역주민에 경찰업무 이해 · 체험 기회 제공... 협력치안기반 조성
 범죄예방순찰 · 교통봉사활동 등 지역치안 협력 다양한 활동 펼쳐
 일반적 고소 · 고발 절차 및 법률상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숙지

감치안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시민경찰학교의 유래
 시민경찰학교는 미국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환으로 1984년 Orlando시 경찰국에서 경찰업무 집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개선을 위해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대규모 또는 소규모 경찰관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텍사스주, 위싱턴주, 일리노이주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시민경찰학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시민경찰학교는 미국 전역의 주와 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과 범집행 경찰관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시민경찰학교는 2001년 1기를 시작으로 2016년 10기까지 총 317명을 배출했다. 시민경찰들은 범죄예방순찰, 교통봉사활동, 아동 · 청소년

지킴이, 범죄신고요원 등 지역치안의 협력 파트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시민경찰 활동
 시민경찰학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군산시민 누구나 희망할 수 있다.

입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경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행정을 이해하고 경찰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번 10기 시민경찰학교는 2년 만에 개설돼 모집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14일 입교한 시민경찰들은 일반적인 고소 · 고발 절차 및 일반 법률상식, 시뮬레이션 사격, 과학수사(CSD), 112 종합상황실 체험,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강 · 절도 예방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며 시민경찰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익혔다.

특히, 합동순찰과 음주단속현장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시민경찰 수료생 전선심(55)씨는 “개인적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통해 많이 개선됐으며 경찰 업무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진홍(20)씨는 “이번 기회에 시민경찰 교육을 받음으로써 경찰업무에 대해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특히 체험위주의 교육은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며 앞으로 시민경찰 활동을 통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시민경찰은 전문적인 경찰업무 이해와 실무적인 교육체험을 통해 경찰활동을 더욱 더 세심하게 이해함으로써 경찰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든든한 시민경찰로 태어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중요시 되는 여성안전치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 공인 및 등산로 일대에 대한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시민경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현시대는 민 · 경 참여치안 · 공감치안이 강조되며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때 시민경찰의 존재가치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산지역에서 어떠한 강력범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마이산의 여울 운림일반일암
 백운동계곡 운림갈거계곡

시원한 여름 휴가

진안고원에서 느껴보세요

제8회 동향면 수박축제

2016. 8. 6(토) ~ 8. 7(일) 2일간

진안군 동향면 동향체련공원